내 삶의 물꼬를 트며

정신적 허기를 채우는 목마름으로

| 이 상 일 |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짜라투스트라 어록」에 의하면 나이 서른에 고향과 고향의 호수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간 그가 어느 날 홀연히 깨닫고 하산을 결심하는 동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무나 많은 꿀을 모은 꿀벌처럼 나는 나의 지혜를 지겨워한다. 나는 뻗어오는 많은 손이 필요하다… 이 잔을 축복하라, 잔은 넘칠 듯하다."

물꼬를 트는 경우 넘쳐서 물길을 빼어 다른 논으로 넘기거나 물길을 메마른 논에 돌리거나 한다. 성현들은 깨달음으로 얻은 지혜를 대중들에게 베푼다. 그 대중 가운데 하나인 나는 시혜의 지혜를 거부하고 싶어했다. 나는 나대로의 체험으로 세상을 알고 싶다. 10년 수도 끝에 독수리와 뱀을 거느리고 넘쳐 흐르는 정신의 부를 간직한 태양과 마찬가지로 가라앉아야 하는 짜라투스트라는 하산을 결심한다. 그는 베푸는 시혜의 물꼬를 튼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는 수혜의 물꼬를 튼다. 흘러 넘치는 부가 아니라 모자라고 또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기 위한 수혜의 물꼬는 가난 탓이다.

그 가난을 채우기 위하여 나는 나대로의 체험으로 세상에서 물었고 그 대답을 찾기 위해 비 오는 어느 날 황혼무렵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 널부러진 사체들의 약품처리 액체의 냄새에 익숙해져야 했다. 해부하던 중에 흰 천으로 덮힌 사체의 하얀 근육의 줄기를 나는 눈여겨 보았다. 무서운

가난을 채우기 위하여 나는 나대로의 체험으로 세상에서 물었고 그 대답을 찾기 위해 비 오는 어느 날 황혼 무렵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 널부러진 사체들의 약품처리 액체의 냄새에 익숙해져야 했다. 해부하던 중에 흰 천으로 덮힌 사체의 하얀 근육의 줄기를 나는 눈여겨 보았다. 무서운 광경은 철저히 눈에 익힘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것과 죽음이 낙엽같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되었다.

광경은 철저히 눈에 익힘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는 것과 죽음이 낙엽같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되었다.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해인사 백련암에서 참선에 참가하기도 했다. "萬法이 歸一하니 歸一何處, 오"라는 화두는 죽음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을까.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화장장 화구(火口)의 유리 저편에서 타들어 가는 시체의 머리 부분을 보면서 고개를 돌렸을 때 들었던 낮은 파열음이 두개골 터지는 소리라는 화부(火夫)의 말은 나를 역겹게 했다. 그러나 그런 수련을 겪어서 나는 가까운 핏줄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추스렸으며 그의 무덤을 개장하여 화장하는 과정에 백골이 된 고인의 환영을 현실처럼 사랑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남들이 하지 않는 전공을 찾아 대학 독일어 문학과에 들어갔던 나의 꿈은 대학졸업 후 사회 첫 출발에서부터 좌절을 맛보아야 했다. 고등학교 선생 자리 대신 경리과 직원 자리가 배당되고 그것마저 실력자의 배경 탓이라는 사실을 알고 삶의 현실적 대응책을 마련한 나는 점심값도 나오지 않는 지방 언론사에 입사 시험을 치르고 지역 대학원 철학과 석사과정에 들어갔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마음의 가난 탓이었다. 무엇인가 내 마음을 채워줄 그 무엇이 필요했다. 부흥회의 열광적인 노래소리와 박수소리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살을 부비는 젊은 관능의 절정도 나를 진정시킬 수 없었다면 그 정신적 허기는 어디에서 왔던 것일까.

진주의 『개천 예술제』에서 시 부분 장원을 했던 나는 김춘수 김남조 시인의 각별한 배려를 입었었다. 시인이 되기 위해 '문리대 문학' 동인이

되었지만 일반 문학지에 추천을 의뢰할만한 배짱도 로비력도 없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편집부 기자, 영화평 담당 등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나는 대학원 철학과에서 당시 한고비 지난 실존철학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전공을 바꾸는 것보다 계속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해서 다시 서울의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대학강사가 된 나에게 맡겨진 강좌는 독일어 문법, 독일시, 독일 드라마 등 나의 의사와 상관없는 것들이었다.

재원이었던 전혜린 교수가 죽고 그 후임이 된 나는 주관적 시 정신보다 객관적 사회의식으로서의 연극 · 드라마 쪽에 경도되어갔고 마침내 뜻이 그 방향으로 굳어져 시인들 보다는 극작가 연출가 배우들과의 교류가 더 활발해졌다.

내 삶의 물꼬를 다시 틀게 된 것은 스위스 유학이었다. 드라마센터의 연구생 과정에서 알게 된 연극 전문가로서의 유치진 선생이나 여석기 이두현 김정옥 교수 외에 이해랑 선생이나 오사랑 씨 그리고 젊은 극작가나 연기자들은 어쩌면 내 삶의 동반자들이 아니었는지 모른다. 그저 연극을 한다, 공부한다는 데 대해 아직 시에 대한 집념만큼 나는 철저한 가치 인식을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스위스 유학은 글자 그대로 문화적 충격이었다. 생활만이 아니라 연극 드라마에 대한 인식, 예술전반에 대한 가치 기준이 자기도취에 불과했던 나에게 비로서 인문학적 가치인식의 수단으로 떠오른 것이 민족학(民族學)의 안목과 연구방법론이었다. 영국 독일에서 싹을 틔운 민족학은 미국에서 인류학, 특히 문화인류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으로 발전했다.

스위스 유학은 글자 그대로 문화적 충격이었다. 생활만이 아니라 연극 드라마에 대한 인식, 예술전반에 대한 가치 기준이 자기도취에 불과했던 나에게 비로서 인문학적 가치인식의 수단으로 떠오른 것이 민족학(民族學)의 안목과 연구방법론이었다. 영국, 독일에서 싹을 틔운 민족학은 미국에서 인류학, 특히 문화인류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으로 발전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제 비로서 말리노프스키라든가 레비 · 스트로우스의 이름이 내 귀에 들리고 동시에 아케 · 타입(原型) 같은 융 심리학의 잠재의식 세계가 조금씩 나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신화와 설화의 세계에 접근하였고 연극 · 드라마의 기원에 대한 민족학적 관점에서 새삼스럽게 동양연극, 샤머니즘의 예능학을 주시하였으며 전통축제의 공연예술학에 탐닉하게 되었다.

스위스의 문화적 충격은 알프스산을 오르는 일행 가운데 남녀 한쌍이 벌인 초스피드 사랑이었다. 처음 서먹서먹한 눈인사로 시작했다가 산 중턱 쯤에서 서로 허리를 끌어안고 입맞춤하고 산꼭대기에서 약혼하고 하산하여 결혼식을 올리고 며칠 뒤 이혼한 그 젊은 한 쌍은 무엇이 그렇게 급했던 것일까. 분명히 그때 유럽 문명은 급하게 선회하고 소용돌이치며 물질적 풍요 가운데 정신적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마치 2천년대 들어 더욱 메마르는 정신적 가난에 물꼬를 틀어 논물이 가득 담기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망처럼…….

아무 것도 갖지 않는 가난의 풍요로움이 연극 · 드라마에서 꽃을 피운 것은 아르또, 그리고 폴란드의 그로토우스키 등 동양적 연극에서 영향을 받은 천재들 때문이다. 그들은 시적 비전을 가졌던 실험정신의 소유자들이었다.

나이 들어 다시 시를 사랑하면서 스위스 유학이 물꼬를 터준 연극 · 드라마의 사회의식이 내 평론활동의 메마른 가난의 논이었음을 나는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다.